

UAE원전 2호기 상업운전 개시

- UAE원전 1호기에 이어 12개월 내 2호기 상업운전 성공적 개시 -
- 한국 수출형 원전의 2개 호기 상업운전으로 한전의 원전기술력 국내외 재입증 -
- UAE 내 청정에너지원 공급 확대 및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-

UA E원전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(이하 한전)와 UAE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 선도기업인 UAE원자력공사(ENEC)는 UAE원전 2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3월 24일 발표하였다.

UAE원전 2호기는 지난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고, 2021년 3월 연료장전 및 8월 최초임계 도달 이후 시운전 시험, 성능보증시험 등을 거쳐 3월 24일 상업운전에 착수하였다.

UAE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청정전력을 공급 중이며, 2호기는 1호기에 이어 12개월 내 상업운전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및 한전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, 이는 제2의 해외원전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설계(한국전력기술), 제작(두산에너지빌리티), 시공(현대건설/삼성물산), 시운전 및 운영지원(한국수력원자력)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.

UAE원전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1,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

로, 아랍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로서 향후 60년간 UAE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.

UAE원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수요의 25%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, 2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UAE 내 무공해 청정전력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예정이며 UAE 정부가 추진 중인 '2050 Net Zero 탄소저감 정책'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UAE는 복수호기 원전 운영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원전운영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하였으며, 자국내 24시간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 및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.

한편 UAE원전 3호기는 2021년 건설을 완료하고 UAE 규제기관의 운영허가 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, 4호기는 올해 고온기능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.

한전 및 팀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며, UAE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정적인 운영은 한-UAE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. **KIIF**